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노인의 고정관념 비교연구*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Adolescents and Middle-Aged Adults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교수 박경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이영숙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Inje University

Professor: Park, Kyung Rhan

Faculty of Human Ecology, Kunsan Nat'l University

Professor: Yi, Yeong Sug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and to compare stereotypes toward the elderly held by adolescents and middle-aged adults. Stereotypes toward the elderly were examined at two levels: to assess students' and middle-aged adults' beliefs about the traits of the elderly and to categorize the traits into stereotypes. Traits groupings were analyzed with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th adolescents and middle-aged adults believed the negative stereotypes were more characteristic of the elderly than the positive ones. Second, middle-aged adults reported more complex negative stereotype sets of the elderly than adolescents. Third, Adolescents reported even more negative physical appearance traits of elderly persons than the middle-aged. Fourth, the traits endorsed as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rsons were often contradictory within two age groups. For example, adolescents

* 2000년도 인제연구장학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perceived "sacrifice" as a positive trait of the elderly, while middle-aged adults perceived it as a negative one.

◆ 주요어: 고정관념, 노인특성, 특성의 범주

I. 서론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노인의 긴 여가시간, 역할상실, 수입절감, 건강약화, 부양 및 보호 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장인협·최성재, 1995). 더욱이 우리 나라의 평균수명은 '99년 현재 남자 71.7세, 여자 79.2세(조선일보, 2001.7.25)로 지난 71년에 비하여 남자는 12.7년, 여자는 13.1년이 늘어났다. 또한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 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총 인구의 7.1%(약 337만명) 선으로 높아졌으며, 2022년에는 노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을 전망이다(조선일보, 2000.7.11).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로 향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과거보다 부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즉 사회의 급격한 발달은 노인의 지식이나 지혜를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또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속에 매우 깊숙이 스며들어있어 노인에 대한 대부분의 편견이나 차별을 인식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다(Palmore, 1999).

사회노년학 문헌은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은 "사회적 통념"이며, 이것은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Schonfield, 1982). 그러나 Crockett & Hummert(1987; Vernon, 1999 재인용)는 비록 노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광범위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고정관념에 있어서도 한 때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신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오늘날은 고정관념을 구성하는 신념이 본질상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 현저하다(Ashmore

& Del Boca, 1981; Taylor, 1981).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연구들(박경란·이영숙, 2001a; Brewer & Lui, 1984; Brewer et al., 1981; Hummert, 1990, 1993; Schmidt & Boland, 1986)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람들이 단일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고정관념을 갖는다는 가정에 입각하여 고정관념의 특성과 그 범주를 조사해 왔으며, 그 결과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부정적·긍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몇 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는 소수(예: Hummert et al., 1994)에 지나지 않아 여러 연령층에 걸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노인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특성들이나 이러한 특성들의 구성은 연령에 걸쳐 다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에 대한 지각은 개인의 가치관, 사회화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개인의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Luszcz & Fitzgerald(1986)는 각 연령집단(cohort)에 의해 중시되는 인생 우선 순위의 차이는 세대간의 오해를 가져오는 또 하나의 기반이 된다고 하였다. 각 연령단계의 발달과업은 청소년, 중년, 노년기를 특징지으며(Erikson, 1963), 자신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은 다른 연령집단에 대해서 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Hummert et al.(1995)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역할과 이에 따른 경험들은 노화에 대한 본질을 달리 보게 할 것이며 나아가 "노인"에 대한 지각에도 차이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들은 고정관념 연구에 다른 연령을 포함시킬 필요성을 암시한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의 관

점을 모으는 것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신체적 고정관념, 그리고 고정관념의 묘사와 같은 문제에는 특히 중요하다(Hummer et al., 1994)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지각에 대한 연령층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함축성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지각을 조사한 연구가 적은 것은 물론 대부분 양적 조사에만 국한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예: 김혜경, 1997; 한정란, 2000). 따라서 사람들이 노인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령집단별로 노인지각의 본질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중년이 지각하는 노인의 고정관념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과연 연령과 생활주기가 다른 이들 집단들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어떤 것이며, 양 집단간에 어떤 지각의 차이를 보일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기는 노인에 대한 지각이 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기로서(이선자, 1989) 오늘날의 청소년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노년기를 오래 경험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복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세대들이며, 중년은 노년기를 앞둔 예비노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에 대한 양세대 지각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 비교해 봄으로서 첫째, 노인 및 노년기를 각 연령별로 어떻게 이해시키고 교육시킬 것인지 둘째, 자신의 노화과정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세대간의 편견 및 오해를 줄이고 노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II. 이론적 고찰

1.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한 대상에 대한 일련의 신념으로 정의된다. 일부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으로 지적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한 집단의 성원들이 다른 집단에 대해 함의적으로 가지는 일련의 신념으로 말하는데 사용된다(Knox et al.,

1995). 또한 고정관념은 종종 태도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엄밀히 구분해보면 태도가 보다 정서적인 개념이라면, 고정관념은 보다 인지적인 개념이다(Palmore, 1999). 다시 말해서, 태도의 핵심 요소가 평가적인 것이라면 고정관념은 한 특정 집단에 대한 이미지, 신념, 기대를 구성한다. 따라서, 고정관념은 한 집단으로서의 특성, 느낌, 행동에 대한 신념과 기대를 포함한다(Vernon, 1999)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관련문헌에서는 보편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다. 예를 들어, McTavish(1971)는 노인에 대한 지각에 대한 연구를 고찰한 연구에서 노인은 일반적으로 느리며, 잘 잊어버리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슬픔을 느끼며, 피곤해 하며, 성적으로 관심이 없으며, 종교 이외의 활동에 참여를 적게 하며, 움츠리는 경향이며, 여러 단체 활동에서 비생산적이고 결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Palmore(1999)는 많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에는 최소한 병, 성적 무기력, 추함, 정신적 쇠퇴, 정신적 질환, 무능력, 고립, 빈곤 및 우울 등의 9개 측면이 있는 반면, 긍정적 주요 고정관념에는 친절함, 지혜, 신뢰성, 풍요로움, 정치적 힘, 자유, 변함없는 젊음, 행복의 8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연구결과를 보면, 서울시 남녀 중학생 347명을 대상으로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한 연구(이은미, 1990)에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중립 혹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다. 즉 '노인'하면 생각나는 모습과 성격에 대한 중학생의 반응은 긍정적('자상하다' '많은 경험이 있다')인 내용보다는 중립('허리가 굽었다' '손자가 있다') 혹은 부정적('간섭이 심하다' '완고하다')인 내용이 많았다. 최근 남녀 대학생 대상으로 한 서병숙·김수현(1999)의 조사결과에서도 남녀 대학생은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하여 비활력적, 수동적, 약한, 한가해 보임, 의존적, 조그마한, 비생산적인, 저속한, 불만족, 무능한, 빈약한, 비관적, 탐욕스러운, 좁은, 소원한, 폐쇄적, 느린, 보수

적, 고집 센, 정적, 회색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몇몇 연구들(박경란·이영숙, 2001a; Hummert, 1990; Hummert et al., 1994; Schmidt & Boland, 1986)은 더 나아가 이러한 노인의 특성들을 집단화하려는 시도를 행하였으며, 그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고정관념은 여러 하위범주로 구성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Schmidt & Boland(1986) 두 연구자는 대학생의 첫 번째 집단에게 노인과 관련된 긍정적, 부정적인 모든 용어를 나타내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작업에서 99개의 특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군집화한 결과 먼저 신체적 특성, 긍정적 특성, 부정적 특성의 세 군집으로 나누어졌다. 다음 뒤의 두 군집 내에 12개의 중간 수준 범주 즉 4개의 긍정적 범주(이상적인 조부모, 자유로운 (여)가장, 존웨이인 보수주의, 경험이 풍부한)와 8개의 부정적인 범주(은둔적인, 취약한, 의존적인, 건강이 매우 손상된, 잔소리가 심한/심술궂은, 건강이 약간 손상된, 시끄러운 이웃, 변덕스러운)로 나타났다.

Hummert(1990)의 연구에서는 Schmidt & Boland(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보다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의 하

위범주가 각각 한 개씩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Hummert et al.(1994)는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중년과 노인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는데, 세 연령집단 모두 다른 연구에서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긍정적 범주로서 '은퇴한 초로의 노인'(예: 자원봉사자, 여행경험이 많은, 미래지향적인, 호기심 있는, 건강을 인식하는, 생기에 넘치는, 성적인, 재치 있는, 유능한 등)이 포함되었다.

반면, 우리 나라 노인의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박경란·이영숙, 2001a)에서는 대학생들이 서술한 전형적인 노인의 특성은 총 89개였으며, 긍정적 특성(28개)과 부정적 특성(61개)으로 나누어졌다. 긍정적 특성은 3개의 군집 즉 '조부모상' '전통적 (여)가장' '생을 통합하는'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적 특성은 7개의 부정적 군집 즉 '은둔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 지친' '비관적인' '목표가 없는' '위축된' '생활감각이 부족한'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대학생들 역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1>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범주

Schmidt & Boland (1986)	Hummert (1990)	Hummert et al. (1994)		박경란·이영숙 (2001a)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	중년	대학생
이상적인 조부모 자유로운 (여)가장 존웨이인 보수주의 경험이 풍부한	이상적인 조부모 자유로운 (여)가장 존웨이인 보수주의	이상적인 조부모 은퇴한 초로노인 존웨이인 보수주의	이상적인 조부모 은퇴한 초로노인 존웨이인 보수주의 자유로운 (여)가장	조부모 상 전통적 (여)가장 생을 통합한
은둔적인 취약한 의존적인 건강 매우 손상된 잔소리심한/심술궂은 건강 약간 손상된 시끄러운 이웃 변덕스러운	은둔적인 취약한 의존적인 건강 매우 손상된 심술궂은/까다로운 융통성 없는 노인 자기중심적인	은둔적인 취약한 의존적인 건강 매우 손상된 심술궂은/까다로운	은둔적인 자기중심적인 의존적인 건강 매우 손상된 심술궂은/까다로운 건강 약간 손상된	은둔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 지친 비관적인 목표가 없는 위축된 생활감각이 부족한

2. 연령집단에 따른 노인의 고정관념

노인에 대한 관점은 평가하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Luszcz, 1883), 적어도 연령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윤성혜, 1990; 이선자, 1989; Heckhansen et al., 1989; Hummert et al., 1994).

연령단계별로 살펴볼 때 우리 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연령집단은 중년(윤성혜, 1990) 및 노인(이선자, 1989)이다. 노인의 인식에 대해 청년, 중년, 노년층을 비교 분석한 윤성혜(1990)는 모든 연령층이 노인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세 집단 중 중년층이 가장 긍정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중년층은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중간에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과 노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이중 책임으로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인 큰 부담을 느끼게 되고, 실제 노부모를 부양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이선자(1989)는 아동기에 가장 긍정적인 노인에 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될수록 노인에 대한 시각은 더욱 부정적으로 되어 가는 경향이라고 하였다. 즉 청년기에 개입되기 시작하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점진적으로 성인기와 중년기까지 지속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노년기에 더욱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윤성혜의 지적과 유사하게, 중년들은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이라는 이중의 부담으로 노인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일 수 있으며, 또는 노인 자신들이 그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변화의 결과로 가족관계에서 실제적인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Luszcz & Fitzgerald(1986)는 수용성(acceptability) 통합성(integrity) 및 도구성(instrumentality) 시각에 있어 젊은이와 노인간에 차이가 컸으며, 중년은 젊은이와 노인의 관점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면서 중년들은 다른 두 연령집단에 대한 생물학적 가까움으로 그들의 관점을 중재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몇몇 연구들은 연령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복잡해진다고 주장하였다. 복잡해진

다는 것은 "노인"을 묘사하는 특성의 수와 특성의 하위범주의 수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rewer & Lui(1984)는 사진분류(a photograph sort)와 사진-특성 짝짓기 과제(a photograph-trait pairing task)를 사용하여, 노인들은 젊은이 집단보다 그들 연령 집단에 대해 보다 복잡한 묘사를 하는 것으로 발견하였다.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욱 많은 범주로 사진을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Heckhansen et al.(1989)은 젊은이·중년·노인 세 집단의 성인들이 성인기의 발달에 대해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인과 중년들은 젊은이들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앞서 설명한 Hummert et al.(1994)의 연구에서는 젊은이, 중년, 노인들이 각각 묘사한 노인특성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였으며, 고정관념 하위범주에 있어서도 긍정적 고정관념에서 3범주와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4범주가 일치하여 각 연령집단은 노인에 대한 7가지 전형적 원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따른 다소의 차이를 지적하였는데, 즉 노인은 중년보다, 중년은 젊은이보다 더욱 광범위한 고정관념의 하위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젊은이와 중년의 양 집단을 비교해보면, 중년은 젊은이들에 비해 긍정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각각 1범주씩 더 많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 보다 많은 유형을 나타내었다(표 1참조).

이러한 연령에 따른 복잡성의 차이는 내집단(ingroup)/외집단(outgroup)의 관점과 발달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Brewer & Lui, 1984; Heckhansen et al., 1989). 우선 내집단/외집단 관점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보다 복잡한 인지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보다 중년이, 중년보다 노인이 노인에 대해 보다 복잡한 인지구조를 갖는다. 반면 발달적 관점에서는 노화에 대한 이해의 틀(schemes)에 인생경험이 통합되는 것을 반영한다. 즉 노화의 본질에 대한 지식은 개인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써 그리고 경험의 결과로써 변화한다. 그래서 노인들은 노화과정과 협상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인지구조를 수정, 확대하기 때문에 젊은이들보다 노화에 대해 보다 복잡한 인지구조를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생경험은 노인에게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Hummert et al., 1994).

이상 고찰한 연구결과들을 요약해보면, 첫째, 개인은 노인에 대해 다양한 고정관념을 가지며 일부는 긍정적이고 일부는 부정적이다. 둘째, 개인들이 묘사하는 노인특성의 수준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많은 측면에서 동일한 고정관념을 가진다. 셋째, 중·노년은 젊은이들보다 더 복잡한 고정관념의 양상을 지닌다 (Hummert et al., 1995).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노인의 특성을 산출하는 제1조사의 대상은 전북과 경남 소재 고등학생 31명과 중년층 24명이었다. 고등학생은 남학생 16명, 여학생 15명이며 이들의 나이는 만 15~18세(평균 16.9세)이며, 중년층은 본 연구를 위해 도와주기를 자원한 남성 16명, 여성 8명이며 이들의 나이는 만 40~52세(평균 44.1세)이었다.

노인의 특성을 분류하는 제2조사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남녀 각각 13명씩으로 이들의 평균 나이는 16.8세이며, 중년층은 남성 10명, 여성 15명으로 이들의 나이는 36세부터 50세 사이였으며 평균 42.4세이었다. 이들은 제1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중학교졸업 2명, 고등학교졸업 14명, 대학교졸업 9명이었다.

2. 조사과정

1) 조사1: 노인의 특성을 산출하는 과정

Schmidt & Boland(1986)가 사용한 방법에 따라 2001년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만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할 때 노인의 전형적인 특성이 어떻게 묘사될 수 있는가를

잠시 생각하라고 요청하였다. 그 다음 한 단어나 짧은 문구 등을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노인의 전형적인 특성을 모두 적도록 하였다. 또한 이제까지 노인에게 속한 것으로 들어왔던, 보아왔던 모든 것을 기록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묘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이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또는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간에 관계없이 서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시간 제한은 두지 않았다.

조사결과, 피험자들은 한 단어(명사 또는 형용사)나, 유사한 의미의 두 단어(예: 쓸쓸하고 외로운), 짧은 구절, 또는 간단한 문장으로 노인의 특성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서술된 노인특성은 대체로 외모나 무능력 등을 나타내는 특별한 신체적 특성, 인성 특성, 인지적 특성, 역할 특성, 심리적 안녕을 나타내는 특성, 그리고 평가적인 반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중복되는 내용과 고정관념 특성에 반영될 수 없는 것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우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두 연구자들이 각자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하여 노인의 특성목록을 분류, 정리하였다. 피험자들에 의해 표현된 단어 중 이전 연구(박경란·이영숙, 2001a)에서 사용했던 단어 그대로이거나 유사한 것은 1,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표현된 단어는 2, 특성이 아닌 것 즉 본 연구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노인의 고정관념과 무관한 표현으로 판단되는 서술(예: 박하사탕, 노인 복지시설이 없음 등)이나 평가적인 항목은 3으로 번호를 부쳤다. 평가적인 항목(예: 감사할만한, 부양해야 하는, 귀찮은, 환영받지 못하는, 대책이 없다, 차에서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등)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노인에 대한 개인적 평가나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신뢰도는 두 연구자의 분류가 일치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중년층 96.4%, 청소년층 94.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표현되어 최종 목록에 부가된 특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닌 새로운 표현 중

〈표 2〉 부가적 범주로 선정된 단어

특 성	연 령		n(%)
	청소년 (N=31)	중년 (N=24)	
성숙된	1 (3.2)	5 (20.8)	긍정적
새것에 관심있는	3 (9.6)	5 (20.8)	부정적
삶을 결산하는	0 (0.0)	6 (25.0)	긍정적
자녀성공을 원하는	1 (3.2)	6 (25.0)	긍정적
미소짓는	5 (16.1)	3 (12.5)	긍정적
애정을 원하는	0 (0.0)	5 (20.8)	부정적
삶에 애착이 많은	4 (12.9)	9 (37.5)	부정적(청소년) 긍정적(중년)
고집이 센	1 (3.2)	6 (25.0)	부정적
냄새가 나는	17 (54.8)	1 (4.1)	부정적
연로한	3 (9.6)	5 (20.8)	부정적
청결하지 않은	4 (12.9)	3 (12.5)	부정적
초라한	15 (48.3)	1 (4.1)	부정적
흰머리가 많은	31 (100.0)	4 (16.6)	부정적
허리가 굽은	17 (54.8)	2 (8.3)	부정적
이가 빠진	28 (90.3)	0 (0.0)	부정적
귀가 어두운	17 (54.8)	0 (0.0)	부정적

두 연령층 각각의 피험자 10% 이상이 각각 지적하였거나, 또는 한 연령층(중년층 또는 청소년층) 피험자의 20% 이상이 지적한 단어가 선정되었다(표2 참조).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노인의 인성적, 인지적 특성, 신체적 특성, 활동이나 역할 등을 서술하는 84개 특성을 노인의 고정관념 표현으로 채택하였다.

2) 조사2: 노인의 특성을 분류하는 과정

노인특성 분류작업을 위해 우선 조사1에서 산출된 84개의 노인특성을 하나씩 적은 84장의 카드와 '기타'라고 적은 1장의 카드를 포함하여 총 85장의 카드를 만들었다. 이를 2000년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조사1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26명(청소년), 25명(중년층)의 피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동일한 노인의 특성이라고 생각되는 특성들을 하나의 집단 속에 집어넣어 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만일 어떤 한 특성이 하나의 집단 이상에 속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하는 집단 모두에 넣도록 하였으며, 반면 어느 집

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기타'라고 적혀진 카드에 넣도록 지시하였다. 따라서 만일 두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은 해당되는 두 집단에 걸쳐 놓여지며, 세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은 해당되는 세 집단에 모두 놓여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류되는 집단의 수는 참여자의 생각에 따라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분류를 끝마칠 때까지 여러 번 바꾸어 제시도 해도 무방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을 완성하는데 시간은 제약하지 않았다.

3. 분석방법

고정관념을 분류하기 위해 표시된 자료를 84*84 행렬표에 배치하였다. 이 행렬표는 같은 두 특성이 동일한 집단에 놓여지는 빈도수로 작성되었다. '기타'로 분류한 특성은 다른 모든 특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취급하였다. 이 결과행렬표를 거리가 가까운 대

상끼리 순차적으로 묶어가는 위계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특성 산출

청소년층과 중년층이 기술한 고정관념 단어는 최소 5개부터 최대 40개까지였다. 청소년층은 최소 10개~최대 40개(평균 32.09개)의 단어를 기술하여 최소 5개~최대 29개(평균 11.1단어)를 기술한 중년층에 비하여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많이 기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층이 중년층에 비해 노인을 묘사하는 단어를 많이 기술한 것은 청소년층으로 조사한 고등학생은 현재 교육을 받고있으므로 이러한 조사 방식에 익숙한 점이 작용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청소년층은 중년층에 비해 신체적 특성에 대한 묘사에 많이 치우친 경향이였다. 반면 중년은 청소년에 비하여 기억력과 주의력이 떨어지며(장인협·최성재, 1995) 이와 같은 조사에 익숙지 않아 노인을 묘사하는 단어를 더 표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84개 단어의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중년이 지각하는 노인 특성의 일부는 양면성을 띠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회생적인-이기적인, 성숙된-어린아이와 같은, 배울 점이 있는-무식한, 편안한-불안한, 미소짓는-잘 웃지 않는, 지혜로운-어리석은, 품위 있는-초라한 등이다. 이는 어떤 한 노인의 행동 특성을 묘사한 것은 아니고 단지 조사 대상인 청소년 또는 중년 개인이 지각하는 노인특성에 대한 지각을 합쳐 나온 결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노인을 회생적으로 보는 청소년이나 중년이 있는가하면 이기적으로 보는 청소년이나 중년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을 띠는 두 단어가 동일 군집의 노인 특성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이전 연구(박경란·이영숙, 2001a)에서 사용된 단어를 이번 조사에서 동일 또는 명칭만 바꾸어 사용한 단어는 68개였다. 이들 68개 단어는 대학생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사된 것과 동일하거나 의미가

유사한 것들인데, 이 중 의미가 유사하나 표현이 약간 달라 단어의 명칭을 이번 조사에서 표현된 것으로 바꾼 것은 5개 단어였다(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낙관적인, 희망이 없는→서글픈, 종교에 관심있는→지나치게 종교적인, 박식한→배울 점이 많은, 이야기꾼→이야기를 잘하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인생경험이 많은). 이러한 단어들은 청소년과 중년이 모두 서술한 단어이지만 청소년이 총 848개(평균 27.35개) 서술하여 중년의 서술(209개, 평균 11.1개)보다 많이 서술하였다($t=13.22, p<.01$).

또한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 이외의 이번 조사에서 추가된 단어(16개)도 청소년층(147개, 평균 5.65개)이 중년층(58개, 평균 2.32개)보다 더 많이 서술하였다($t=4.39, p<.01$). 추가된 단어는 긍정적 단어 4개, 부정적 단어 11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단어 1개('삶에 애착이 많은' 단어로 중년은 긍정적 단어로, 청소년은 부정적 단어로 분류함)였다. 긍정적 단어 4개 중 3개가 다수의 중년이 표현하여 선택된 것이었으며, '삶에 애착이 많은' 단어도 중년은 긍정적 단어로 선택하여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단어를 더 표현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부정적 단어는 11개 중 다수의 청소년이 표현하여 6개가 선택되었으며, '삶에 애착이 많은' 단어도 청소년은 부정적 단어로 선택하여 노인에 대한 묘사를 부정적으로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단어는 '냄새가 나는', '초라한', '흰머리가 많은', '허리가 굽은', '이가 빠진', '귀가 어두운' 등으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표현하는 서술로서 청소년은 노인의 전형적인 특성을 외관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특성 분류

노인에 대한 84개 특성을 군집 분석한 결과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층과 중년층 모두 상위수준에서 긍정적 군집과 부정적 군집 둘로 분류되었다. 상위 두 군집은 22개(중년층)-23개(청소년)의 긍정적 고정관념 특성을 포함하는 긍정적 군집과 62개(중년층)-61개(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 특성을 포함하는 부정적 군집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층이 긍

정적 특성은 1단어 많이, 부정적 특성은 1단어 적게 기술하였다.

중위 수준에서 청소년은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9개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긍정적 군집 3개, 부정적 군집은 6개로 분류하였다. 반면 중년은 긍정적 군집은 3개, 부정적 군집은 7개로 분류하여 전체 10개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긍정적 군집에 속하는 단어는 청소년층이 1개 더 많이 기술하였으나 부정적 군집은 중년층이 1군집 더 많은 것은 주목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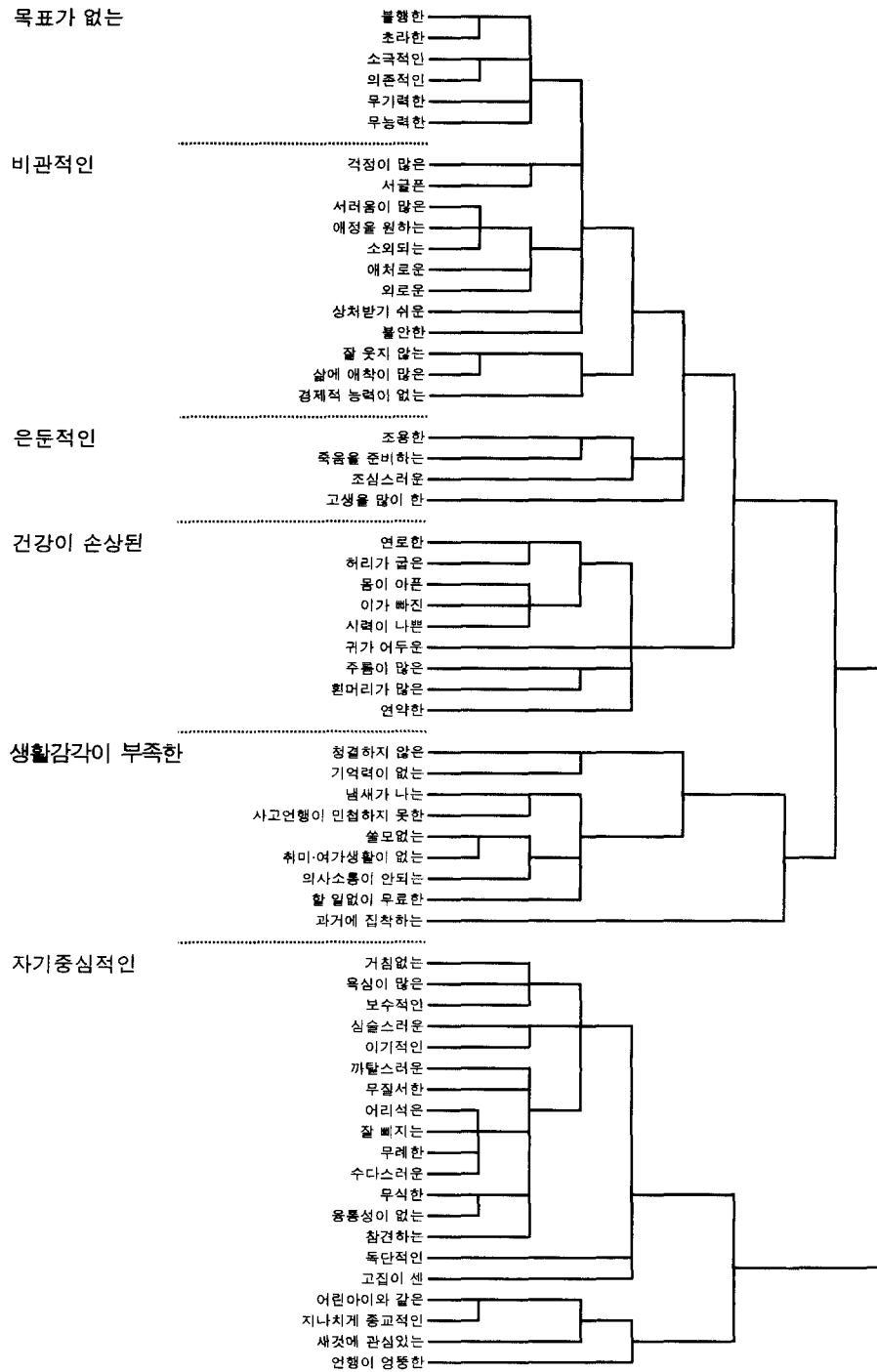
1) 부정적 고정관념

노인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은 전체 84개 특성 가운데 청소년은 61개 특성, 중년은 62개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노인에 대하여 갖는 고정관념은 전체의 72.6%, 중년은 73.8%가 부정적인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즉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연구(박경란·이영숙, 2001a)나 외국 연구(Hummert, 1990)에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긍정적 고정관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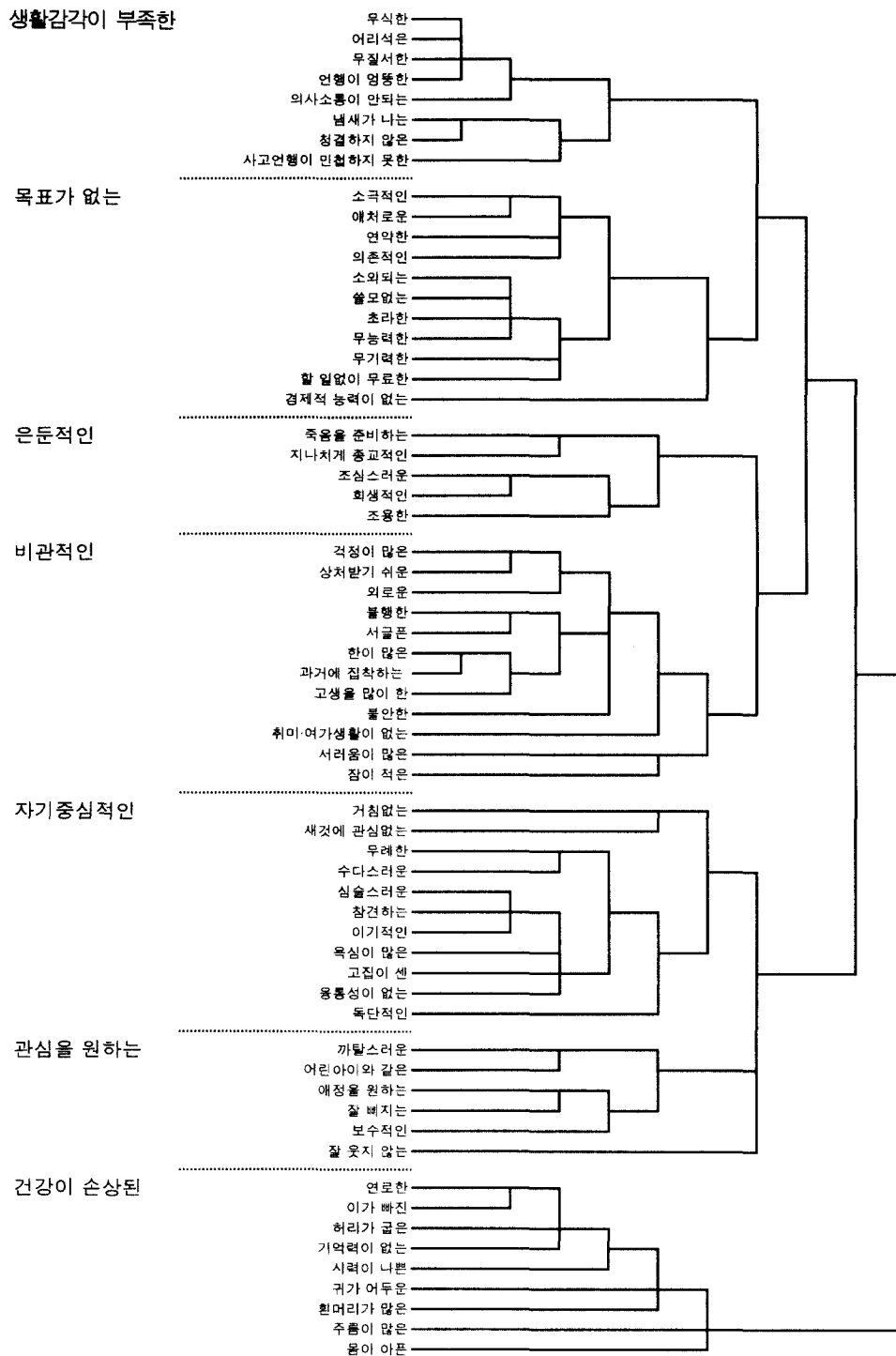
청소년이 가진 61개 부정적 특성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6개의 중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6개의 부정적 군집은 '목표가 없는', '비관적인', '은둔적인', '건강이 손상된', '생활감각이 부족한', '자기중심적인'이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제 1군집은 불행한, 초라한, 소극적인, 의존적인, 무기력한, 무능력한 등 6개 특성으로 자신의 앞날에 대한 지표가 없어 활력적이지 못한 사람이 가지는 특성들 6개가 포함되었으므로 이는 '목표가 없는'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2군집은 걱정이 많은, 서글픈, 서러움이 많은, 애정을 원하는, 소외되는, 애처로운, 외로운, 상처받기 쉬운, 불안한, 잘 웃지 않는, 한이 많은, 삶에 애착이 많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등 13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들은 낙천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삶을 비관하며 사는 사람의 특성들이므로 '비관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3군집은 조용한, 죽음을 준비하는, 조심스러운, 고생을 많이 한 등 4개 특성

이 해당되며 이는 사회생활에 적극적이지 못하여 혼자서 숨어사는 듯한 사람의 특성들이므로 '은둔적인'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4군집은 연로한, 허리가 굽은, 몸이 아픈, 이가 빠진, 시력이 나쁜, 귀가 어두운, 주름이 많은, 흰머리가 많은, 연약한 등 9개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아 나타난 특성들이므로 '건강이 손상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5군집은 청결하지 않은, 기억력이 없는, 냄새가 나는, 사고언행이 민첩하지 못한, 쓸모없는, 취미·여가생활이 없는, 의사소통이 안되는, 할 일없이 무료한, 과거에 집착하는 등 9개 특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현실생활을 잘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생활감각이 부족한'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6군집은 거침없는, 욕심이 많은, 보수적인, 심술스러운, 이기적인, 까탈스러운, 무질서한, 어리석은, 잘 빠지는, 무례한, 수다스러운, 무식한, 융통성이 없는, 참견하는, 독단적인, 고집이 센, 어린아이와 같은, 지나치게 종교적인, 새 것에 관심있는, 언행이 엉뚱한 등 20개 특성인데 이러한 특성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 위주의 삶을 더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성이므로 '자기중심적인'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6개 범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박경란·이영숙, 2001a)의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며, '자기중심적인', '은둔적인', '건강이 손상된'은 외국에서의 연구들(Hummert, 1990; Hummert et al., 1994; Schmidt & Boland, 198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이 가진 62개 부정적 특성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7개의 중위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7개의 부정적 군집은 '생활감각이 부족한', '목표가 없는', '은둔적인', '비관적인', '자기중심적인', '관심을 원하는', '건강이 손상된'이었다. 구체적으로 부정적 제 1군집은 무식한, 어리석은, 무질서한, 언행이 엉뚱한, 의사소통이 안되는, 냄새가 나는, 청결하지 않은, 사고언행이 민첩하지 못한 등 8개 특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생활감각이 부족한' 노인의 특성으로 보았다. 부정적 제 2군집은 소극적인, 애처로운, 연약한, 의존적인, 소외되는, 쓸모없는, 초라한,



〈그림 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그림 2〉 중년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무능력한, 무기력한, 할 일없이 무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등의 11개의 특성은 '목표가 없는'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3군집은 죽음을 준비하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조심스러운, 회생적인, 조용한 등 5개 특성이 해당되며 이를 '은둔적인' 노인 군집으로 명명하였다. 부정적 제 4군집은 걱정이 많은, 상처받기 쉬운, 외로운, 불행한, 서글픈, 한이 많은, 과거에 집착하는, 고생을 많이 한, 불안한, 취미·여가생활이 없는, 서러움이 많은, 잠이 적은 등 12개 특성으

로 이러한 특성들을 '비관적인'으로 명명하였다. 부정적 제 5군집에는 거침없는, 새것에 관심있는, 무례한, 수다스러운, 심술스러운, 참견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고집이 센, 융통성이 없는, 독단적인 등 11개 특성인데 이 특성들은 '자기중심적인'으로 명명하였다. 부정적 제 6군집에는 까탈스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애정을 원하는, 잘 빠지는, 보수적인, 잘못지 않는 등 6개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모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방

〈표 3〉 중년과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 특성 비교

군집명	대상집단 (공통특성수)	중년	청소년	대학생*
목표가 없는	모두(1)	무기력한		
	중년, 청소년(4)	초라한, 소극적인, 의존적인, 무능력한		
	중년, 대학생(3)	무료한, 쓸모없는, 경제력이 없는		무료한, 쓸모없는, 경제력이 없는
비관적인	모두(1)	서러움이 많은		
	중년, 청소년(6)	걱정이 많은, 상처받기 쉬운, 외로운, 서글픈, 불안한, 한이 많은		
	중년, 대학생(2)	과거에 집착하는, 불행한		과거에 집착하는, 불행한
	청소년, 대학생(2)		애처로운, 잘못지 않는	
은둔적인	모두(3)	조심스러운, 조용한, 죽음을 준비하는		
	중년, 대학생(1)	지나치게 종교적인		지나치게 종교적인
건강이 손상된	중년, 청소년(8)	연로한, 이가 빠진, 허리가 굽은, 시력이 나쁜, 귀가 어두운, 흰머리가 많은, 주름이 많은, 몸이 아픈		
생활 감각이 부족한	모두(2)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고언행이 민첩하지 못한		
	중년, 청소년(2)	냄새가 나는, 청결하지 못한		
	중년, 대학생(4)	무식한, 어리석은, 무질서한, 사고언행이 엉뚱한		무식한, 어리석은, 무질서한, 사고언행이 엉뚱한
	청소년, 대학생(1)		기억력이 없는	
자기중심 적인	모두(7)	심술스러운, 독단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참견적인, 수다스러운, 무례한		
	중년, 청소년(4)	거침없는, 고집이 센, 융통성 없는, 새것에 관심있는		
	청소년, 대학생(3)		까탈스러운, 잘 빠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 박경란 · 이영숙(2001a).

법들이므로 ‘관심을 원하는’으로 명명되었다. 부정적 제 7군집은 연로한, 이가 빠진, 허리가 굽은, 기억력이 없는, 시력이 나쁜, 귀가 어두운, 흰머리가 많은, 주름이 많은, 몸이 아픈 등 9개 특성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건강이 손상된’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7개 범주 가운데 ‘관심을 원하는’을 제외한 6개 군집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박경란·이영숙, 2001a)와 상당부분 일치하며, ‘자기중심적인’ ‘은둔적인’ ‘건강이 손상된’ 등은 외국에서의 선행연구들(Hummert, 1990; Hummert et al., 1994; Schmidt & Boland, 1986)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가진 부정적 고정관념과 중년이 가진 부정적 고정관념을 비교해보면 중년이 분류한 7군집 중 6군집이 청소년의 그것과 일치하여 청소년과 중년이 가진 부정적 고정관념이 상당히 유사함을 나타내준다. 또한 이 6군집의 구성 특성도 상당부분 동일하여 청소년과 중년의 노인에 대한 지각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중년이 가진 부정적 특성 61개 중 38개 특성이 청소년과 동일하여 62.3%의 일치율을 나타냈다. 군집별로 살펴보면 ‘목표가 없는’ 군집은 5특성이 같았고, ‘비관적인’ 군집은 7특성, ‘은둔적인’ 군집은 3특성, ‘건강이 손상된’ 군집은 8특성, ‘생활감각이 부족한’ 군집은 4특성, ‘자기중심적인’ 군집은 11특성이 동일하여 이러한 특성을 해당 군집의 중심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심 특성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와 비교하여 보면(표 3 참조) ‘목표가 없는’ 군집에서 ‘무기력한’ 단어는 3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어 이를 핵심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관적인’ 군집은 ‘서러움이 많은’을, ‘은둔적인’ 군집은 ‘조심스러운, 조용한, 죽음을 준비하는’을, ‘생활감각이 부족한’ 군집은 ‘의사소통이 안되는, 사고언행이 민첩하지 못한’을, ‘자기중심적인’ 군집은 ‘심술스러운, 독단적인, 이기적인, 욕심이 많은, 참견적인, 수다스러운, 무례한’을 핵심 특성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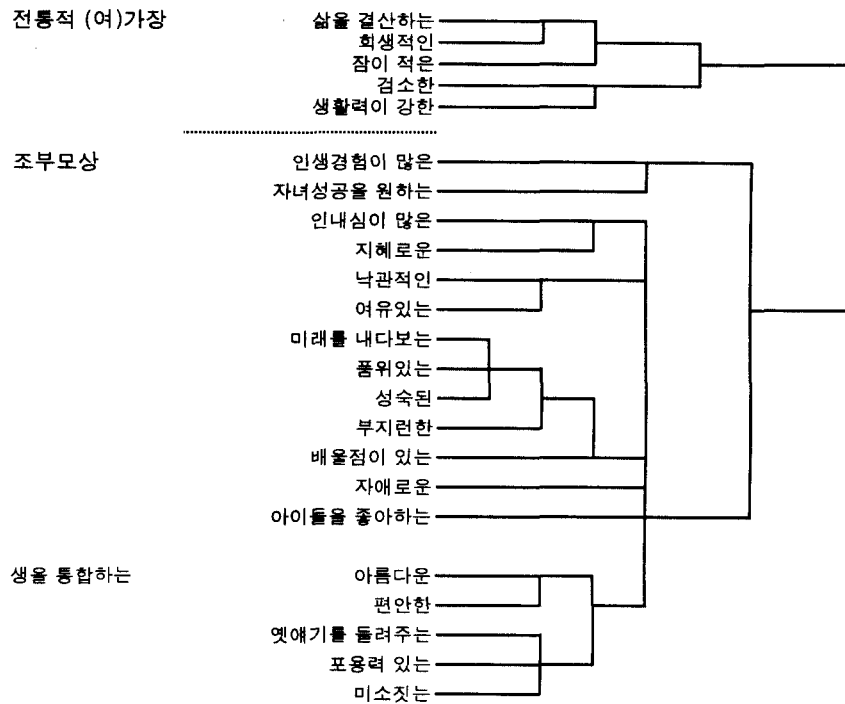
2) 긍정적 고정관념

청소년이 노인에 대해 인지하는 긍정적 고정관념

의 3개 군집에는 <그림 3>에서 보듯이 ‘전통적(여)가장’, ‘조부모상’, ‘생을 통합하는’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제 1군집에 포함되는 특성은 삶을 결산하는, 회생적인, 잠이 적은, 검소한, 생활력이 강한 등 5개 특성으로 이는 모두 우리 전통 사회에서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진 특성에 해당되므로 ‘전통적(여)가장’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2군집은 인생경험이 많은, 자녀성공을 원하는, 인내심이 많은, 지혜로운, 낙관적인, 여유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품위있는, 성숙된, 부지런한, 배울점이 있는, 자애로운, 아이들을 좋아하는 등 13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은 과거부터 손자나 손녀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에게 기대하는 특성이므로 ‘조부모상’이라고 명명되었다. 긍정적 제 3군집은 아름다운, 편안한, 옛 얘기를 들려주는, 포용력 있는, 미소짓는 등 5개 특성으로 이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은 노인의 특성이므로 ‘생을 통합하는’이라고 명명되었다.

한편 중년이 노인에 대해 인지하는 긍정적 고정관념의 3개 군집도 청소년의 것과 동일하였다. 즉 <그림 4>에서 보듯이 ‘생을 통합하는’, ‘조부모상’, ‘전통적(여)가장’으로 분류되었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제 1군집에 포함되는 특성은 미소짓는, 아름다운, 여유 있는, 낙관적인, 성숙된, 자애로운, 포용력 있는, 지혜로운, 품위 있는, 편안한, 배울 점이 있는 등 11개 특성으로 이를 ‘생을 통합하는’ 노인의 특성으로 보았다. 긍정적 제 2군집은 미래를 내다보는, 인내심이 많은, 검소한, 삶을 결산하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옛 얘기를 들려주는, 인생경험이 많은, 부지런한 등 8개 특성으로 이러한 특성을 ‘조부모상’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긍정적 제 3군집은 삶에 애착이 많은, 생활력이 강한, 자녀성공을 원하는 등 3개 특성으로 이를 ‘전통적(여)가장’의 특성이라고 보았다.

청소년이 가진 긍정적 고정관념과 중년이 가진 긍정적 고정관념을 비교해보면 3개의 군집 모두 구성 특성이 상당부분(중년의 40.9%) 동일하여 청소년과 중년이 갖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전통적(여)가장’ 군집은 1특성이 같았고, ‘조부모상’ 군집은 5특성, ‘생을 통합하는’ 군집은 4특성이 동일하여 이러한 특성을 해당 군



〈그림 3〉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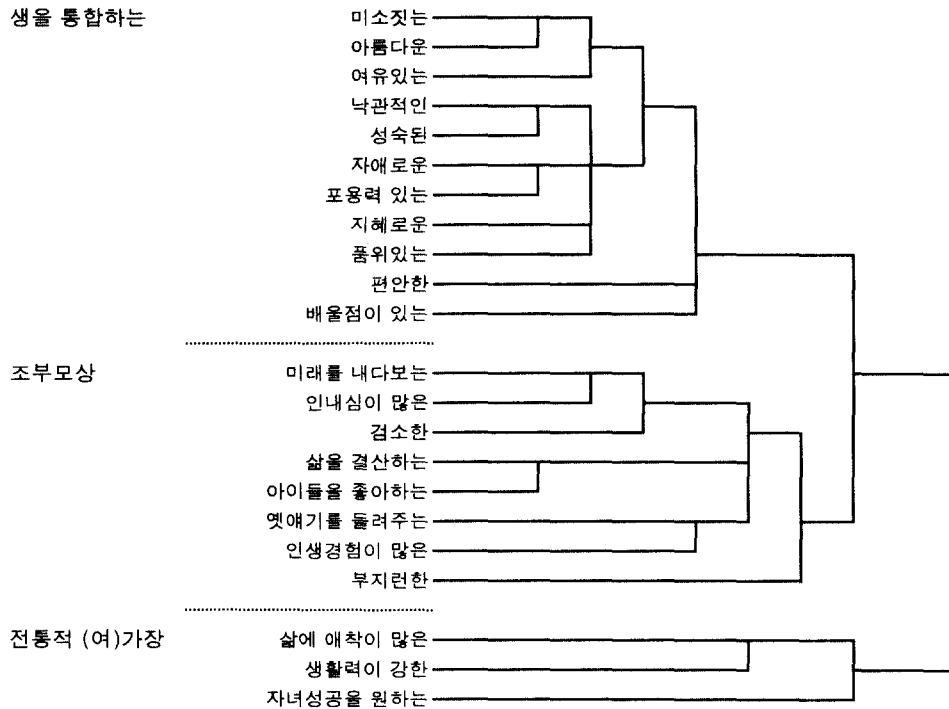
집의 중심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심 특성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보면 (표4 참조) '전통적 (여)가장' 군집에서 '생활력이 강한' 단어는 3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있어 이를 핵심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활 통합하는' 군집은 '포용력이 있는, 편안한'을, '조부모상' 군집은 '아이들을 좋아하는'을 핵심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 고정관념은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박경란 · 이영숙, 2001a)와 3군집 모두 일치하나, Schmidt와 Boland(1986), Hummert(1990), Hummert et al.(1994) 등의 외국 연구결과와는 '조부모상' 군집만 일치하였다. 또한 이러한 군집 내 특성들을 이전에 행해진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해보면,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고정관념이 청소년이나 중년의 고정관념과도 유사함을 볼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청소년은 전체 23개 특성 중 청소년은 9개 특성(39.1%)을 대학생과 동일하게 분류

하였고, 중년은 전체 22개 특성 중 6개 특성(27.2%)을 대학생과 동일하게 분류하였다.

이상 살펴본 청소년과 중년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결과를 비교해볼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유사점은 무엇보다도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지며, 부정적 고정관념이 긍정적 고정관념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다시 분류하였을 때 긍정적 측면의 3군집 모두, 부정적 측면의 7개 군집중 6개 군집이 동일하며, 이러한 군집이 포함하는 특성들이 상당부분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 연구(박경란 · 이영숙, 2001a)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과 중년이 노인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노인에게 부여하는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노인을 어려운 일



〈그림 4〉 중년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고정관념

〈표 4〉 중년과 청소년의 긍정적 고정관념 특성 비교

군집명	대상집단(공통특성 수)	중년	청소년	대학생*
전통적(여)가장	모두(1)	생활력이 강한		
	청소년, 대학생(2)		희생적인, 검소한	
생을 통합하는	모두(2)	포용력이 있는, 편안한		
	중년, 청소년(2)	미소짓는, 아름다운		
	중년, 대학생	지혜로운		지혜로운
조부모 상	모두(1)	아이들을 좋아하는		
	중년, 청소년(4)	인생경험이 많은, 인내심이 많은, 미래를 내다보는, 부지런한		
	중년, 대학생(1)	이야기를 잘하는		이야기를 잘하는
	청소년, 대학생(3)		자애로운, 여유있는, 품위있는	

* 박경란 · 이영숙(2001a).

을 극복하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나 너그러울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로 특징 지워왔는데 이러한 특

성을 청년뿐 아니라 청소년이나 중년들도 노인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래

에 청년지향적인 문화가 유입되면서 노인은 젊은이에 비해 생활감각이 부족하여 은둔적인 삶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은 오랜 기간 살아와 삶에 지쳤으며 미래 목표가 없이 비관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생각이나 노인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청소년이나 중년의 노인에게 대한 고정관념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노인에게 부여하는 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점은 청소년과 중년 모두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인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고정관념보다 적다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전통사회에서 노인에게 위세와 존경을 베풀었던 이유는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최신덕, 1985)이지만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현상들이 속출하는 산업화 사회에서 노인에게 대한 가치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즉 노인들에게 분명히 정해진 기능 및 역할이 결여된 현대 사회에서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노인에게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과 중년의 노인에게 대한 고정관념에는 유사점이 존재하는 만큼 차이점도 상당하였다. 첫째, 청소년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6개 범주로 분류하였는데 중년은 '관심을 원하는' 군집을 더 분류하여 7개 범주로 분류하여 중년이 청소년보다 복잡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노인에게 대한 고정관념이 복잡해진다는 결과를 밝힌 선행연구(Brewer & Lui, 1984; Heckhausen et al., 1989; Hummert et al., 199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내집단(ingroup)/외집단(outgroup)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서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보다 복잡한 인지구조를 갖는다고 보는데, 중년들은 노인을 자신들과 다른 연령집단(외집단)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노인의 생애주기로 이동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Hummert et al., 1994).

둘째, 선행 연구에서와 공통적으로 서술되어 선택

한 단어 이외에 청소년과 중년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서술된 부가적인 단어의 선택을 통해서도 청소년과 중년의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중년은 주로 긍정적인 단어를 서술하여 중년이 서술한 단어 중에서는 긍정적인 단어가 선택되었던 반면, 청소년이 서술한 단어 중에서는 부정적인 단어가 더 많이 선택되어 청소년과 중년이 노인을 지각하는 측면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중년이 청소년에 비해 지나온 오랜 세월에 대한 회고 관점에서 통합적인 생을 나타내는 특성을 많이 지적하는 경향인데, 이는 긍정적 고정관념의 '생을 통합하는' 범주에서 청소년보다 훨씬 많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서술한 부정적인 단어 중에는 신체적인 특성이 많았는데, 청소년은 이러한 신체적인 특성을 부정적으로 서술하여 노인의 외면적 특성을 중시하며 그것으로 노인을 지각한다는 점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년들이 청소년들보다 노인에게 대해 긍정적인 묘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같은 결과는 외국의 선행연구(Hummert et al., 1994)의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나, 노인에게 대한 중년들의 태도가 청소년들의 태도보다 더욱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한 우리 나라의 이선자(1989)와 윤성혜(1990)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것이어서 연구방법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추후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본 연구 결과 나타난 청소년과 중년이 가진 고정관념의 특이한 차이는 청소년과 중년이 같은 단어를 서로 다른 범주에 넣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탈스러운' '잘 빠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보수적인' 등의 노인 특성이 청소년 집단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고정관념 범주에, 중년 집단에서는 "관심을 원하는" 고정관념 범주에 속해 있는데 이는 노인이 나타내는 특성이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은 추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특기할 점은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 범주 차원에서 양 세대는 몇몇 노인특성을 상반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많은 중년이 긍정적으로 지각한 '삶에 애착이 많은' 단어를 청소년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지각한 '잠이 적은'과 '회생적인' 단어는 중년은 부정적인 단어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과 중년이 이러한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삶에 애착이 많은 것을 아직 인생 경험이 적은 청소년은 좋지 않게 보지만 중년층은 삶의 애착을 가장의 특성이라고 여길 정도로 가족·자녀에 대한 책임과 애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잠이 적은 것은 할 일이 많은 청소년에게는 대단히 좋은 특성이지만 할 일이 적어진 중년에는 잠이 적어진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미를 부여했으며, 회생적인 특성이 청소년에게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지지만 인생을 어쩔 수 없이 회생적으로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었던 세대인 중년에는 그다지 좋은 특성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과 중년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노인의 특성 및 특성의 범주를 분류하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청소년과 중년에게 개방형질문의 조사와 조사된 단어를 분류하도록 하여, 이 결과를 위계적 군집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과 중년이 노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청소년과 중년 모두 노인집단에 대하여 긍정적 고정관념보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었다.

청소년과 중년이 가진 차이점으로는 첫째, 청소년은 부정적 고정관념을 6개 범주로 분류하였고 중년은 7개 범주로 분류하여 중년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복잡하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과 중년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서술된 부가적인 단어의 선택에서, 중년은 주로 긍정적인 단어를 서술하였던 반면, 청소년은 부정적인 단어를 서술하여 청소년과 중

년이 노인을 다르게 지각하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청소년이 서술한 부정적인 단어 중에는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이 많아 그들이 중년과는 달리 노인의 외면적 특성으로 치우쳐 지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과 중년은 같은 단어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부여한다는 사실이다. 중년이 긍정적으로 지각한 '삶에 애착이 많은' 단어를 청소년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지각한 '잠이 적은'과 '회생적인'은 중년은 부정적인 단어로 지각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청소년과 중년은 대학생이나 마찬가지로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기보다는 훨씬 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였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이 노인에 대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부는 노인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박경란·이영숙, 2001b)하므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기회를 필요로 함을 알려 준다. 특히 청소년은 중년에 비하여 노인을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로 더 많이 서술하며, 외관적인 특성으로 지각하는 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노인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결여된 요즘의 청소년에게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 경험이 특히 필요한 시기가 청소년기임을 인식하여 노인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에 덧붙여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간의 직접적인 경험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노인 및 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미래의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에게도 세대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서적·정신적으로 안정을 꾀하고, 생활태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 만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과 중년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의 부

정적인 고정관념의 범주와 핵심 단어를 살펴볼 때, 노인들 자신이 보다 자립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생활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노인들이 존경받고 지지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세대간에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를 위해 예비노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요망된다. 노년기가 인생의 한 중요한 단계임을 깨닫게 하고, 노후에도 생활의 목표를 갖고 능동적으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많은 지지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해와 지식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다양한 청소년계층과 중년계층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아동, 노년층을 포함한 다른 연령층과의 비교 연구를 하여 노인의 고정관념에 대한 내적/외적 집단과 발달적 분류과정의 상대적인 기여를 확인해야만 한다(Hummert et al., 1994). 아울러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비교하는 연구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청소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대상자의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집단으로 확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세대간의 차이가 순수한 연령차이 효과인지, 동년배집단 효과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접수일 : 2001년 9월 10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1월 16일

【참 고 문 헌】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이민 가족내의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간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박경란 · 이영숙(2001a). 대학생이 갖고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대한가정학회 2000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박경란 · 이영숙(2001b). 노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중가가 대학생의 노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 200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이선자(1989). 연령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미(1990). 중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텔레비전의 드라마와 코메디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 · 최성재(1995).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선일보. 2001년 7월 25일자.
- 조선일보. 2000년 7월 11일자.
- 서병숙 · 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윤성혜(1990). 청년 · 중년 ·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 -127.
- Ashmore, R. D., & Del Boca, F. K.(1981). Conceptual approaches to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In Hamilton, D. L.(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Hillsdale, 1-37.
- Brewer, M. B., & Lui, L.(1984). Categorization of the elderly by the elderl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585-595.
- Brewer, M. B., Dull, V., & Lui, L.(1981). Perceptions of the elderly: stereotypes as prot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56-670.
- Erikson, E.(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arris, D. K. & Cole, W. E. 최신태 역(1985). 노년 사회학. 서울: 경문사.
- Heckhausen, J., Dixon, R. A., & Baltes, P. B.(1989).

- Gains and losses in development throughout adulthood as perceived by different adult age groups. *Development Psychology* 25, 109-121.
- Hummert, M. L.(1990). Multiple stereotypes of elderly and young adults: a comparison of structure and evaluations. *Psychology and Aging* 5(2), 182-193.
- Hummert, M. L.(1993). Age and typicality judgements of stereotypes of the elderly: perceptions of elderly versus young adul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 217-226.
- Hummert, M. L., Garstka, T. A., Shaner, J. L., and Strahm, S.(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49(5), 240-249.
- Hummert, M. L., Shaner, J. L., & Garstka, T. A. (1995). Cognitive processes affecting communication with older adults: the case for stereotypes, attitudes, and beliefs about communication. In Nussbaum J. F., & Coupland, J.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aging research*.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05-131.
- Knox, V. J., Gekoski, W. L. & Kelly, L. E.(1995). The age group evaluation and description (AGED) inventory: anew instrument for assessing stereotypes of and attitudes toward age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0(1), 31-55.
- Luszcz, M. A.(1983). An attitudinal assessment of perceived intergenerational affinities linking adolescence and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6, 221-231.
- Luszcz, M. A., & Fitzgerald, K. M.(1986). Understanding cohort differences in cross-generational, self, and peer perceptions. *Journal of Gerontology* 41(2), 234-240.
- McTavish, D. G.(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4), 90-101.
- Schmidt, D. F. & Boland, S. M.(1986). The Structure of impressions of older adults: evidence for multiple stereotypes. *Psychology and Aging* 1, 255-260.
- Schonfield, D.(1982). Who is stereotyping whom and why? *The Gerontologist* 22, 267-272.
- Taylor, S.(1981). A categorization approach to stereotyping. In Hamilton, D. L.(ed.). *Cognitive processes in stereotyping and intergroup behavior*.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Hillsdale, 83-114.
- Vernon, A. E.(1999). Designing for chang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intergenerational programming. *Child & Youth Services* 20(1-2), 161-173.